

**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성의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Tendency into Korean Modern Interior Design

남경숙* / Nam, Kyung-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on the source, the introductive process and the phenomenon of the regional tendency into Korean modern interior desig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method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

1. Explaining the regionalism in the architecture as the source of the regional tendency.
2. Explaining the introductive process of the regional tendency in Korean modern interior design..

For that, 1)Explaining the traditional expression, the neo-corbusian expression and the organic expression with nature in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2)Explaining the vernacular expression and the abstract expression in Korean modern art

3. Studying the regional tendency in Korean modern interior design

For that, 1)Studying the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ality 2)Studying the expression of the vernacular 3)Studying the expression of the environmental affinity

By these methods and contents, we will study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tendency into Korean modern interior design.

키워드 : 지역성, 한국현대실내디자인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과거 양식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순수 형태의 국제주의양식을 추구하였던 근대건축디자인이 지역문화와 주위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아이덴티티와 장소성의 상실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민족성, 지방성, 휴머니티, 낭만성을 추구하고는 많은 시도들로 오늘날의 건축디자인을 다원화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이들이 현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술적 합리성이 요구되는데 이들은 종종 과거의 순수하고 단순한 것들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곤 한다. 그러나, 미래의 어떠한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발생시키는 데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영입시키는데 달려있다. 실내디자인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서구적 방법론 추종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무절제한 개성화라는 명분으로 전통 문화 또는 우리 것에 대한 반성을 함께 제기하면서 우리시대

한국실내디자인어들에게 내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현대화하며 원천으로 돌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오래된 문화를 되살리며 세계적인 현대화에 참여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들 수 있고, 우리들의 디자인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현대한국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한 특이한 현상으로 한국지역문화의 느낌이 나도록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배만실의 경주호텔학교 커피숍(1977), 손석진의 뉴반도호텔 레스토랑(1977), 문신규 평창동주택(1978), 이범호 제과점 신라당(1979) 등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지역문화를 향한 현대디자인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벌써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실내디자인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아직 이런 양상을 하나의 결과물로서만 간과할 뿐 그 근원이나 도입과정 등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그 근원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지역적인 건축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인가 둘째, 그 도입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이는 어떻게 표현되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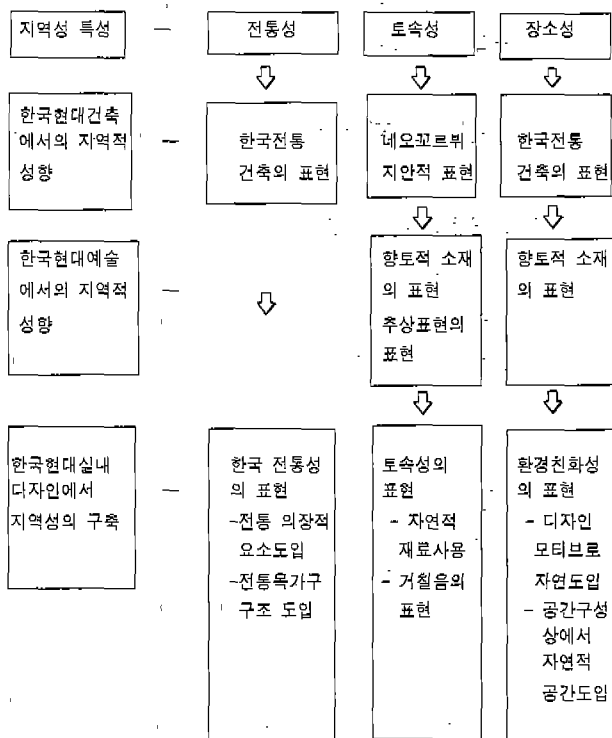
* 신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예술사학박사

** 본 연구는 2000년 신라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조성되었습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한국 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적 성향의 도입을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60년대 건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건축에서의 지역성을 설명하고 여기서 실내디자인에서의 지역적 성향의 근원을 찾는다. 둘째,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여 한국 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성이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한국건축에서의 1960년대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국 전통건축의 표현과 네오 코르뷔지안(Neo-Corbusian)적 표현 그리고 자연과의 유기적 표현을 본다. 예술에서는 향토적 소재의 도입에 의한 향토성의 표현과 추상표현에 의한 표현성을 본다. 이는 건축과 예술이라는 실내디자인과 유사한 영역에서부터 사고가 유추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들이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 지역적 성향의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지역적 성향을 연구하는 단계로 지역적 성향을 한국전통건축에서의 전통성 표현, 재료의 거친 마감표현에 의한 토속성 표현, 자연의 도입에 의한 환경친화성 표현을 본다. 넷째, 이런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 지역성의 근원과 도입되는 과정, 그 상황과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방법과 범위 및 내용



2. 지역성의 개념 및 특성

실내디자인에서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이제까지 연구되어 온 건축에서의 지역성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실내디자인에서의 지역성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1. 건축에서의 지역성의 개념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상황의 다양한 모순대립으로 인한 중국혁명, 제 1차 베트남전쟁, 인도네시아독립전쟁 등의 잔악한 상황은 인간을 매우 소박하며 자연주의적인 상황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영역에서는 사회적 현실로부터 자연주의와 개인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지역의 전통과 같은 지방색을 띤 신 표현주의가 조형예술영역에 확산된다. 이는 건축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적인 재료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건축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건축물은 주위 풍경과 일치되고, 기후와 조화를 이루며, 그 지역의 생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¹⁾ 이것이 현대건축에서의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지역주의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는데, 비평가 폰상(Debat-Ponsan)은 “지역주의건축은 2가지 면을 가지는데 한 면은 일반적인 지역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한 면은 매우 현대화 된 개념을 갖는 것인데, 이는 건축주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시키려는 건축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라 하였다. 건축 역사가인 모니에(Gérard Monnier)에 의하면, 건축에 있어 지역주의는 2가지 성격을 지닌다. “하나 는 환경과의 일치를 위하여 지역건축양식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개인적인 성향으로 절충주의의 확장을 의미한다. 후자는 1930년대까지 파리의 부호들에 의해 많은 인정을 받았으며, 이는 건물이 위치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다.”²⁾

건축 비평가 기디온(Sigfried Giedion)은 후자를 신 지역주의(New Regionalism)라 명하였다. 이 지역주의는 제 1, 2차 세계대전 후, 지역전통에 뿌리를 두고, 현대화된 사고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현대적인 공간개념에 지역이 갖는 토속적인 요소와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프램톤(Kenneth Frampton)

1)G. Monnier,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en France 1918-1950, Philippe Sers, Paris, 1990, p.344 J.-C., Vigato, "L'architecture du régionalisme: Les origines du débat(1900-1950)", *Dossiers et documents*, no 4, décembre, 1983: 건축 비평가인 비가또(Jean-Claude Vigato)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프랑스건축 이론과 비평의 주된 논쟁이 되었으나, 우선은 파리지역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주의는 19세기 말에 비올레 더 둡(Viollet-le-Duc)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는 건축과 사회와의 관계에 문제가 제시되었던 시기로, 건축방법과 프로그램, 주거건축방법론이 발전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건축적 지역주의는 엘리트 층이나 브르조아 계층에 의해서 선호되었다. 도시생활에 지친 프랑스인들에게, 바캉스철에 휴지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신화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는 브르조아 계층의 빌라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지역적 건축양식의 특성에 부합시킨 것으로, 양과 질과 다양성에 있어 연구의 이상적인 장이 된다. 기본 개념으로는 모든 생산원리를 동일시하는 아카데미즘에 반대하고 있다.

2)G. Monnier, *op. cit.* p.344

은 과거의 토속적 유형의 부활이나 답습이 아닌 세계적인 보편적 문명과 개별적 지역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옹호하는 차원으로서의 건축을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라 하였고, 이는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세계문명의 수용이라는 면에서 제시된 것이다.

지역성은 지역전통의 반영, 주변환경과의 조화, 장소성의 회복 등의 표현성을 가지며 그 지역환경에서 형성되어온 인간성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

2.2. 건축에서의 지역성의 특성

(1) 전통성

전통성은 건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지역의 삶과 역사를 담아냄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와의 연관하에서 과거의 건축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모든 일상사는 과거와 현재의 복합체이므로 현대건축은 역사와 전통의 연속에 의해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므로 전통건축에서 나타난 한 특징적인 면이 현대의 기능과 재료에 맞게 각색됨으로써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의건축은 지역의 전통건축형식, 문화적 특성의 참조와 복원,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전통성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³⁾

비가토(Vigato)는 지역주의는 “생태학적인 진보이거나, 근본적이라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전문화된 정책이나, 역시 스타일적인 요소가 근본이 되는 영역인 아카데미한 논리에 강한 집착을 가진다.”⁴⁾고 한다. 이는 현대화된 스타일과 아카데미한 스타일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상반되는 결합을 나타낸다.

(2) 토속성

토속성은 공간조직을 초월하여 각 지역에서의 독특한 재료의 사용과 표현 등에 의해 사용자들에게 연상적인 작용을 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건축에서의 재료는 색채, 질감, 시공기술 등에 의해 재료의 물성이 강조되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현대 지역주의 건축가들은 건축 형태의 표현 가능성을 장인적인 물성과 기술의 터득을 통해 과거의 양식과 재료가 가진 본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직관과 감성을 건축에 담아 냄으로서 과거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출해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토속성을 획득하기 위해 재료와 형태에 관한 장인적인 탐구를 행한다.

(3) 장소성

현대지역주의 건축은 건축을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위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각 지역이 공유하고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장소성’을 발견하고 회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실존과 관계된 장소의 구현으로 건축을 다루고 있다. 장소성은 그 장소의 자연적, 인공적, 문화적 환경이 가지는 특수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후, 자연경관, 지형 등에의 적응을 공간구조, 건축형식 등을 통해 표현한다.⁵⁾

지역주의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의 진부한 개념을 옹호하는 아카데미즘에 대항하는 공통적 요소를 가지나, 장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기능주의는 건축을 국제화시키려 하나, 지역주의는 반대로 이를 땅에 정착시키려 한다. 지역주의자들은 시골과 도시의 오래된 건축을 형태학적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건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위경관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믿어 생태학적인 접근을 하였고 이들은 건물을 현대 생활의 필요와 방법에 적응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하며, 이런 양식은 장소성의 특성을 가진다.

현대건축에서는 이처럼 지역성이 시대적 요구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지역의 사회, 경제, 지리,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보다 개성 있는 상황과 현실에 부합되는 해결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의 표현은 20세기 후반 건축의 주요한 흐름으로서 지역집단의 공유된 정체성, 동질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개인에게는 집단에의 소속감과 자존의 인식을 부여함으로써 현대문명의 비인간적 상황과 환경에 대처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성의 형성과정

3.1. 한국현대건축에서의 지역성의 형성

(1) 한국전통건축의 표현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성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현대건축에서의 전통건축의 표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실내디자인에 조형적인 요소로서 등장하며 지역적인 성향을

5)건축이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현대 지역주의 건축의 환경친화적인 표현방식은 지역의 빛 기후 등을 고려한 건축적 특징과 자연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나 형태, 공간의 특징, 물리적 맥락과 자연환경의 형태를 따르는 반오브제적인 건축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지역주의 건축은 기술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건축물의 외부공간이나 지붕모양, 개구부, 처마, 공간적인 수법, 색채, 재료 등을 통해서 기후와 빛,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6)김효경, 부산 현대건축의 발전 과정에 관한 분석, 부산대 석사논문, 1993, pp.16-18: 한국 건축계에서의 전통미에 관한 탐구는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 성장을 기초한 때늦은 기능적인 국제주의양식의 도입과 모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첫째, 남북분단의 현실을 반영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통성의 확보 둘째, 제 3공화국의 정치적 체제보존을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확립의 차원에서 셋째는, 이질적 외래문화의 무비판적이고 종속적인 유입에 관한 반성과 자각에서 전통건축의 수용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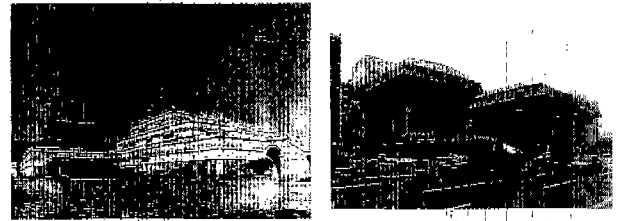
3)Cf. 성혁재, 현대지역주의 건축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논문, 1998, pp.60-75

4)Cf. F. Arnold, Du régionalisme, *Architecture Intérieure*, Créa, no 249,1992, pp.47-55.

나타내게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건축에 대한 전통론 내지 전통의식이 짝튼 시기를 6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전통성을 표현하려는 방식에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방식은 전통양식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방식과 전통양식의 부분적인 구성요소를 단순화시키거나 변용하여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전통건축의 구조양식이 그대로 표출되어 원형을 재현하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가역성을 바탕으로 목구조의 결구형식이 재현의 중심문제가 되며 외부의 마감은 전통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7)로 직설적인 형태묘사의 표현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표현에 있어 민족의식과 주체성 회복이라는 70년대 문화정책에 부합되는 것이었으며 건축주의 일반대중의 공감을 쉽게 유도 할 수 있었으나 현대적 기능수용의 문제점과 전통성 표현이 단순한 변형과 모방에 그침으로서 전통의 창조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구 국립중앙박물관(1971, 강봉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건축의 대표적인 건물인 법주사 팔상전 등에 의해 배치하고 그 양식적 표현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8)

후자의 경우는9) 한국의 전통성은 선조들의 미의식과 그들의 표현방법을 현대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으로 전통요소의 부분적, 장식적 도입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요소의 변형과 전통적인 요소의 단순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대중의 정서와 융합되어 전통성을 표현한 것에서 전통양식의 직설적인 묘사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표현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장충동 국립극장(1973, 안영배)은 전통적인 기둥, 주랑을 단순화하여 외형구조의 모티브로 삼았다. 세종문화회관(1978, 엄문덕)의 경우 한국 고건축의 요소를 서구 고건축의 것과 절충한 기단과 열주, 처마 등이 단순화된 디테일을 구사하며 석재로 표현하여 한국 고건축에서의 전통문양을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이들은 대규모 공공건물의 전통미의 창조적, 현대적인 계승문제로 과거의 것을 어떤 수준에서 재현하고 변형하여야 하는데 논쟁을 야기 시켰다.



<그림 1> 구국립중앙박물관(1971, 강봉진) <그림 2> 세종문화회관(1978, 엄문덕)

(2) 네오 코르뷔지안(Neo-corbustian)적 표현

건축에서의 지역문화에 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는 1950년대 벌써 국제주의에 관한 논란이 퇴화되면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일본에서 돌아온 김수근과 프랑스에서 돌아온 김중업의 작품들에 의해 지역주의 표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주의 표현의 특성은 특히 자연적인 재료의 “있는 그대로”의 거친 마감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르 코르뷔지에의 후기건축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네오 코르뷔지안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김중업은 귀국하여 주한프랑스 대사관(1960), 제주대학 본관(1964), 서산부인과병원(1965) 등에서 강력한 원시성(primitivity)이 갖는 시각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그가 파리에 머무른 당시 르 코르뷔지에의 후기 건축에서 추구한 것을 자신의 건축언어로 실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중업은 여기서10) 프람톤이 지적한 “토속성의 거대화”11) 현상이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을 체험하였다. 재료의 선택은 재료의 “있는 그대로”, “표현적인 이미지”에 강조를 두었고, 이는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청해졌으며, 건축가가 감정과 실체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산업생산에 비평적이며, 보편성을 거부하는 감정의 표현의 건축을 표현하려 한 것이었다. 이는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건축으로 향하려 하는 건축가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의 건축스타일을 제공하였고, 여기서부터 김중업을 비롯한 김수근, 이희태, 엄덕문, 김희춘 등의 건축가들의 많은 연구가 노출콘크리트의 사용에 행하여 졌고 이를 통한 장인적인 재료의 표현은 이 시대 한국 건축계의 하나의 미학으로 인식되었다.

김수근의 경우 60년대의 노출콘크리트의 사용에서 70년대에 벽돌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목재의 자연미와 같이 벽돌을 통해서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하고자 한 것으로 벽돌의 거친 텍스처가 한국인의 토속적인 기호를 자극시킨 것이다. 벽돌을 사용한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디테일은 벽돌과 목재를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건물에 자연스러우면서도 벽돌이 갖는 물성의 강한 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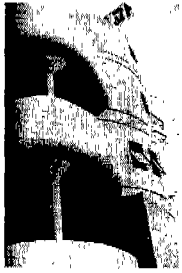
7)윤도근, 한국현대건축의 다원적 형태의사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p.46

8)Cf. 이종업, 한국실내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5, pp.37-42

9)윤도근, 한국현대건축의 다원적 형태의사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2, 8, p.47: “이는 이전의 문백과는 무관하게 구성상 이질적인 재료와 여러 구성원칙의 중첩, 색다른 모티브의 혼용 및 대비 등이 작품자체의 이원적인 대립항을 이루며, 과거와 현재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단편화해서 입체파적인 꼴라주를 통한 내적인 분절과 통합개념의 구성관계를 나타내고 적응, 병치, 대립, 난해한 전체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10)김중업은 1952년부터 3년간 르 코르뷔지에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인도 상디갈의 행정청사, 상디갈의 고등법원의 타피스리, 상디갈의 주거사관저, 상디갈의 의사당 등의 작업에 참여한다.

11)K. Frampton, L'architecture modern, Philippe Sers, Paris, 1985, p.195



<그림 3> 서산부인과병원
(김중업, 1965)



<그림 4> 인도 샹디갈대법정
(Le Corbusier, 1952-1956)

스트를 표현하였다. 벽돌로 지어진 최초의 건물들은 전통 흑전돌로 지어졌는데 공간사옥(1971-1977), 청암장(1974) 등에서는 일반민가의 토담이나 상류주택의 잘 쌓아진 담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 있는 토속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르 꼬르뷔지에의 자율주택에서 보여진 재료의 있는 그대로의 투박미를 나타낸 것으로 네오 꼬르뷔지안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르 꼬르뷔지에의 시각적으로 거친 재료의 발견으로 그의 후기작품들은 시대의 미학과 병행하였고 이는 한국의 건축가들에 의해 60년대부터 한국에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실내디자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림 5> 공간사옥
(김수근, 1971-1977)



<그림 6> 자율주택
(Le Corbusier, 1954-1956)

(3) 자연과의 유기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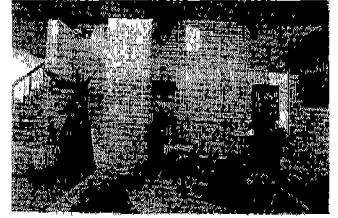
건축과 자연의 유기적 조화라는 것은 자연과 건축이 단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는 유기적인 요소의 하나로 다루어진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김수근에서 1960년대부터 매우 주요한 문제로 한국전통건축의 자연주의사상과 접목시키면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자신의 건축에 접목시키게 된다. 청암장(1974)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건물이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건축이 자연에 스며들고 자연은 건축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건축적 이미지가 주위 환경과의 조화로우음을 추구하기 위하여 테라스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경치를 충분히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벽돌이 주는 강한 텍스처와 함께 담쟁이 덩쿨은 김수근건축의 주요 외장요소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공간사옥과 샹터사옥(1977)의 경우 외벽이 담쟁이 덩쿨로 덮여서 외부로 그 모습이

들어나지 않도록 까지 처리하였다. 이런 외벽처리는 그의 자연주의적 건축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청암장(김수근, 1974)



<그림 8> 청암장내부(김수근, 1974)

3.2. 예술에서의 지역적 성향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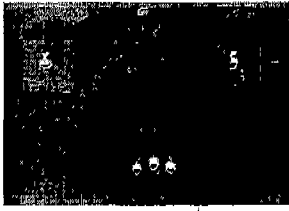
만약 한국현대건축에서의 지역성의 성향이 현대실내디자인에 지역성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대중적이고 조형적인 문화에 관련되는 예술활동에 의해 더욱 성숙된다. 결국 지역성의 표현을 시각적인 이미지와 구조와 재료의 거친 표현이라 정의한다면 이는 정련되지도, 우아하지도, 산업적이지도 못한 건축과 연결될 수 있고 대중예술에 있어서의 '소박한 이미지와 분리될 수 없다.

(1) 향토적인 소재의 표현

한국현대예술에서의 토속적인 성향의 도입은 1930년대에 나타났던 향토적인 소재의 취급이 1950년대에 60년대에 걸쳐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소재 면에서의 풍부한 토착적 정서는 한 시대의 풍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재의 독특한 해설과 구사는 단순한 향토적 작품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우리 고유한 미의식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박수근과 장욱진의 회화는 시골서민들의 전형적인 농촌의 삶의 단면을 다루어¹²⁾ 향토적, 서민적 내용이나 한국적 정서를 풍경적 시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가운데 등장하는 시골마을에는 시골 집, 원두막, 정자, 나무가 있고 달이 뜨고 개가 있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가 등장한다. 흙내가 물썬 풍겨나는 옛 시골의 정경들로 작품의 거의가 전 시대 우리네 농촌의 정경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양달석의 회화세계는 토속적인 시골풍경 위에 환희와 만족과 즐거움이 넘친 상상에 의해 꾸며진 어린아이들의 이상향이 있다. 이중섭의 경우는 우리 민족의 상징인 소를 즐겨 그렸고 이는 선과 퇴색된 색조가 고구려 벽화에 대한 인상을 그의 예술적 결정인자로서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정취적 목가적 형상의 토속적인 표현은 현대회화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는 그 시대 현대스타일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내디자인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12)오광수, 이야기 한국현대미술 한국현대미술이야기, 정우사, p.241



<그림 9> 마을(장욱진,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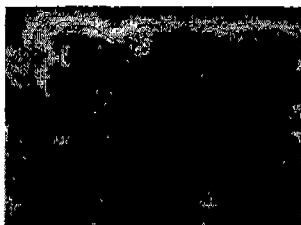


<그림 10> 소낙비(양달식, 1950년대)

(2) 추상표현의 표현

추상표현은 작품의 성격상 앵포르멜¹³⁾과 액션페인팅의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앵포르멜적인 작품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화면의 구성적인 톤에 있어선 앵포르멜을 적용시킬 부분이 많을수록 하면 과격한 제스처로 본다면 액션 페인팅의 요소가 강하게 부각된다. 60년대를 중심으로 표현적 격렬성, 우연한 행위의 강조, 거친 표면의 요철효과, 극단화된 정서의 투여를 보인 것으로 이들의 표현이 70년대의 실내디자인에서의 마감재의 거친 표면의 표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한국전쟁 속에서 그와 함께 져터미로 변해버린 인간성, 전통적 사회질서의 붕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이는 전후 유럽과 미국의 작가들이 '기존의 가치와 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허탈감에 빠졌고 그러한 자신들의 느낌을 관습에서 벗어난 과격적인 미술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¹⁴⁾이 우리화단의 배경과 어느 정도 일치한 데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격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과감함 미적 모험이 일종의 허무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델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박서보의 '원형질'(1963), 최만린의 콘크리트로 된 '천'(1965) 조각품, 박종배의 '철로 된 '역사의 원'(1965)에서는 일체의 이론에 앞서 새로운 모험을 향한 강한 의욕으로 자발적인 창조적 에너지를 감성충동과 격렬한 행위, 투박한 재질적 표현을 대담하게 감행하였다.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 추상표현에서 나타난 이러한 고조된 표현이 전후에 감들던 불안감과 붕괴된 가치관에 대한 위기의식이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미술운동 역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나 이들에게 보여진 액션과 표현은 소수의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자들에게 실내공간을 장인들의 손끝 하나 하나에 의해서 재



<그림 11> 원저(윤명로, 1961)



<그림 12> 역사의 원(박종배, 1965)

13) 50년대 말 이후 질료감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격정의 미술을 잠정적으로 '앵포르멜'로 부르기로 한다.

14) 김영나, 한국화단의 앵포르멜 운동, 일지사, 1988, p.84

의 가공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친 표현성에 대한 탐구심을 갖게 하였다.

4.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서의 지역성의 구축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성의 구축은 한국전통건축과의 연계에 의한 전통성의 표현, 자연적 재료의 거친 마감으로 토속성의 표현, 친환경적인 표현에 의한 접근을 들 수 있다.

4.1. 한국 전통성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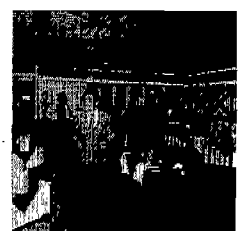
한국전통건축의장의 표현은 70년대에 소수의 젊은 실내디자인들에 의해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국전통건축에서의 한 두 가지 목가구구조나 한식문짝이나 한식패턴 등의 의장적인 요소를 실내디자인적인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는 건축에서의 구조체나 구성요소들이 실내에서는 디자인적인 표현요소로서 변형되고 재구성되었고,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므로 일어나는 것으로 근대화된 공간을 과거의 공간분위기로 연출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전통미를 강조한 경우로는 배만실의 경주호텔학교의 커피숍(1977) 벽면디자인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 당시의 풍속도를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조선호텔한식로비(1969)의 한식벽면 파티션에서 보여졌던 디자인과 기와 담장, 전통인형 등의 전통적인 요소를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당시의 실내디자인에서 보기 드문 성향인 한국전통미를 배만실은 벽면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주 도입하였다.

손석진의 비오리(1977), 뉴 반도호텔(대구, 1977) 레스토랑 마야(1978)에서는 한국전통목가구의 구조를 벽면이나 천장에 도입하였다. 우리마당(1979) 벽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1976)의 사무실 벽면에 한식문짝을 부착하였다. 이범호의 레스토랑 '미라보'(1976)에서도 천장에 기둥과 보의 개념으로 목재를 사용하였고, 체과점 신라당(1979)의 경우 천장에 한식사각적자패턴을 사용하였고 한식가구를 장식적 요소로 들여 왔다. 그러나, 이후 전통성에 관한 디자인적인 언급은 한국 전통물품을 취급하는 상업공간, 한국전통음식을 파는 식음공간, 주거공간의 안방 등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그림 13> 경주호텔학교의 커피숍 (배만실,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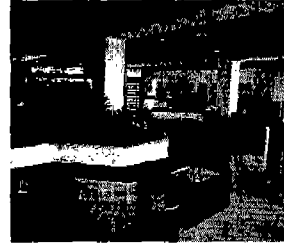


<그림 14> 뉴 반도호텔 레스토랑 (손석진,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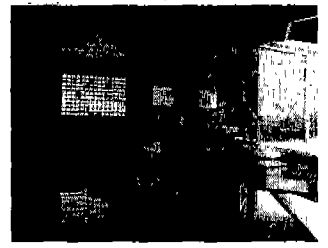
4.2. 토속성의 표현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손석진을 비롯한 소수의 실내디자이너들은 현대디자인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토속적이고 조형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모더니즘이 유행하던 한국의 일반적인 건축디자인계의 흐름과는 아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연적인 디자인, 인간적인 디자인으로 향하게 하였고, 한국실내디자인의 초창기작품의 한 형태를 제공하였다. 손석진의 초창기 작품에 해당되는 멕시코 싸롱(1972)의 경우 당시대의 조성렬, 한도룡이 보여주었던 기하학적인 국제주의의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들은 국제주의의 합리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파벽돌이나 회벽, 통나무 등의 자연적인 재료를 거칠고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분위기를 연출시켰다. 손석진의 명동 늘봄 커피숍(1974, 1977)에서는 전반적으로 목재로 된 사각형의 기하학적인 패턴 사이를 새끼줄을 붙여서 마감시키고 자연석과 벽돌을 장인들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나갔다. 이런 경향은 한동안 주춤하더니 대구의 레스토랑 파파(1981)의 설계에서 강세를 보여준다. '파파'에서는 자연석을 잘게 쪼개어서 붙이고 벽돌 위에 흰색 페인트로 마감하므로 자연적이고 거친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려 했다. 이범호의 레스토랑 '미라보'(1976)에서도 목재를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벽면은 거친 전돌을 사용하였다. 그의 제과점 '신라당'(1979)의 경우 나무를 겹겹이 그을린 분위기로 처리하였고 이와 대조되게 벽돌 위에 흰 페인트를 거칠게 칠하였다. 문신규의 '평창동 주택'(1978)에서는 벽면은 붉은 파벽돌에 흰 줄눈을 거칠게 마감하였고 천장은 목재 후로링을 사용하였으며 가구도 목재로 사용하였다. 문신규의 레스토랑 '오감도'(1978)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고 이 역시 벽면은 붉은 파벽돌과 흰 줄눈을 최대한으로 거칠게 나타내려 하였고, 바닥은 검은 전돌을 거칠게 마감하였으며 천장은 목재 후로링으로 마감되었다. 김영한의 레스토랑 '주호'(1977)와 '구방'(1978), 길경일의 증식당 '동보성'(1970)의 경우 검은 전돌과 붉은 벽돌이 주재료를 이루고 천장에는 목재 후로링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전원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려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 사용된 회칠, 새끼줄, 통나무, 벽돌 등의 재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서 모든 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재료였다. 그러나 이들은 토속적인 공간의 표면을 창조하기 위해 거친 상태 그대로 처리되었다. 이들 작품의 경우 표현적인 의미에서 이는 모더니즘에 의해 영감된 세밀하고 완전한 형태를 불가능하게 하는 촌스럽고 거친 상태를 표현하려 한 것이고, 이는 새로운 미적 해석이고 의미론적인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 신라당(이범호, 1979)



<그림 16> 평창동 주택(문신규,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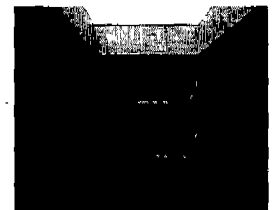
4.3. 환경친화성의 표현

실내공간에 환경과의 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한 작품으로 디자인 모티브로서의 자연을 도입하는 것과 공간구성 상에서 자연적인 공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로코아빌딩(홍순인, 1974)에서는 물을 디자인의 주요 모티브로 도입하여 수공간을 통해 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한다. 층계를 따라 단계적으로 쌓아 올린 난간에 따라 형성된 분수대는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입구공간에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의 자연은 도심에서 쉼처를 제공하는 자연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자연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의 현대화 과정에서 상실한 자연과의 통합의 재 복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레스토랑 문타운(조성렬, 1979)에서는 입구 홀에 외부와 내부를 통합한다는 개념으로 Patio공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전면 창을 경계로 이는 하늘로 향해 열린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서 '자연으로서의 하늘'을 담아냄으로써 빛, 바람 등을 인지시키며 낮 시간 동안 햇빛을 실내에 최대한 도입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 또한 외부공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patio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에서 완충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내부 지향적이 아닌 내외부가 통합되는 디자인으로 자연도 건물구축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여 내부에 자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적인 내부와 자연적인 외부와의 순환을 통한 공간의 통합 및 조화를 꾀한 것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는 공간, 자연적인 재료들의 적극적인 이용 등을 통해 보다 자연과의 접촉부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7> 종로코아빌딩
(홍순인, 1974)



<그림 18> 레스토랑 문타운
(조성렬, 1979)

5.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1)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적 성향의 구축은 건축에서의 지역주의 건축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으며 이 지역주의 건축은 전통성과 토속성 그리고 장소성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2) 지역적인 성향의 구축 과정은 한국현대건축과 현대예술의 두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현대건축에서는 전통성의 표현과 네오꼬르뷔지안적 표현, 자연과의 유기적 표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통성을 띤 한국현대건축은 전통양식을 직설적으로 묘사하거나 전통양식의 부분적인 구성요소를 단순화시키거나 변용하여 장식적인 디자인요소로 사용하였다. 네오 꼬르뷔지안적 한국현대건축은 주로 김종업 김수근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르 꼬르뷔지에의 후기건축을 참조한 것으로 이는 원시건축의 토속성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원시 토속성의 건축은 건축가들에게 자연적인 있는 그대로의 표현법을 전달해 주었으며 이는 곧 실내디자인어들에게도 이러한 디자인이 인간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자연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 자연환경을 중요시 여긴다는 자연주의적 관점도 보여졌다. 지역성은 그 시대의 예술활동에 의해서도 심화됨을 알 수 있었다.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한 서정적이고 목가적 작품과 추상표현에 의한 표현적 격렬성, 우연한 행위의 강조, 거친 표면의 요철효과 등이 예술활동에서도 보여주었듯이 현대 스타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적 성향을 띤 실내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하였다.

3)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지역성은 한국전통건축의 표현, 토속성의 표현, 환경친화적인 표현으로 특성 지을 수 있었다. 한국전통건축의 표현은 전통건축에서의 목가구구조나 의장적인 요소를 실내디자인적인 요소로 도입하였고, 토속적인 성향의 표현은 회칠, 통나무, 벽돌 등의 자연미가 있는 재료를 거친 상태 그대로 표현하였다. 환경친화적인 표현으로는 자연적인 요소를 디자인적 요소로 적용시키거나 자연적인 공간을 실내에 도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4) 이들 디자인은, 산업화된 디자인의 보편성을 향한 대항, 실체에 대한 감각, 인간과 자연으로의 접근, 전통적인 건축에의 근거 등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디자이너들은 실내디자인에서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고귀함을 돌려주기를 원하였는 것 같다.

참고문헌

1. 김영나, 한국화단의 앵포르멜 운동, 일지사, 1988
2. 서상록, 한국의 현대미술, 문예출판사, 1998
3. 안창모, 한국현대건축 50년, 재원, 1996

3. 오광수, 이야기 한국현대미술. 한국현대미술 이야기, 정우사, 1998
4.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미건사, 1962
5. Banham Reyner, The new Brutalism, London. 1966, Le Brutalisme en architecture, dunod, Paris, 1970
6. Curtis William J. R.,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Phaidon, London, 1986
7. Frampton Kenneth,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modern, Thames and Hudson, London, 1980, Philippe Sers, Paris, 1985
8. Monnier Gerard,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en France 1918-1950, Philippe Sers, Paris, 1990
9. Vigato Jean-Claude, Architecture Regionalism, Norma Edition, Paris, 1994
10. 성혁재, 현대지역주의 건축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논문, 1998
11. 윤도근, 한국현대건축의 다원적 형태의사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12. Kosid 작품집, 한국실내건축가협회, 1978-1983

<접수 : 2001. 5. 2>